

이미지전환에 의한 공간디자인 PROCESS 연구

— 포스트 모던디자인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Spacial Design by Transforming Images

— With the Application of Postmodern Design —

이혜진* Lee, Hye-Jin

Abstract

The objects of this thesis are to examine the ways of applying the postmodern theory into the contemporary designing based on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 found the expressions of the postmodern design has much value to communicate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aesthet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stmodern design concepts, the historical allusion is also accepted as an aspect of new "ism" after modernism. In applying the historical motives the problem is that we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ways of life and culture included the external ornaments. Finally if we consider not only the hardware aspects but also the software aspects — society, history, region and culture — we can make our postmodern design language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현대디자인의 제 경향(ISM)들 중에서도 특히 1970년대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혼돈과 오해 속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과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우리의 것으로 적용,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의 단편적인 수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다 독창적인 문화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디자이너, 건축가, 비평가, 문학가들이 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특성을 조형개념과 구체적 표현방법인 공간 구성원리로 나누어 정리하고 포스트 모던 디자인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디자인 해결방안의 근거로 삼는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실험적 적용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1. MEMORY IMAGE (기억 이미지) :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인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역사주의 즉 역사적 기억의 이미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2. VISUAL ELEMENTS (시각적 요소의 추출) : 기억의 이미지에서 선(Line)이나 형태(Form), 패턴(Pattern) 등의 형태적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3. VARIATIONS (파생어 단계) : 앞서 추출된 형태요소들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요소들을 변형, 왜곡, 발전시켜 새로운 독립적인 형태를 만든다.

4. MODEL MAKING (입체화 및 검증단계) : 지금까지 제작된 평면들을 재구성하여 3차원적 형태로 변형시킨다. 결과물에 색채 요소와 그래픽 패턴등을 첨가하여 공간적인 느낌을 부가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분석, 제안한 모든 과정들을 종합정리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결과물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영역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POST-MODERNISM의 특성

2-1. Post-Modernism의 정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디자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Charles Jencks의 저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¹⁾에서 "포스트 모던(Post-Modern)"의 용어를 채택한 이후부터라고

*정회원, 제일기획 복합회팀

1) Charles Jencks(1977),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 Rizzoli, pp.81-126

할 수 있다. Charles Jencks에 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디자인을 언어로 간주하고 그 의사전달(Communication)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엘리트 코드(Elite-Codes)뿐만 아니라 대중적 코드(Popular-Codes)를 모두 이용하여 디자인을 이중 코드화(Dual-Coding)하려고 시도하는 디자이너들의 운동을 말한다.

Robert A.M.Stern은 Modern, Modernism, Post-Modernism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Modern은 고전과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의미에 기반을 두고 도상학(圖像學)적으로 적절한 형태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기술적 혁명을 통해 표현된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인식함을 의미하며, Modernism은 단지 생산 과정에 입각한 형태를 선호하여 과거의 고전적인 것이나 토착적인 것에 내재되어 있는 Modern 디자인의 근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확립하려고 추구하는 것으로서 디자인의 기능과 생산방법을 과거나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낸 상징적 의미보다 더 강조한 것을 의미한다.²⁾

C.Ray Smith는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정되어온 Post-Modern Design의 태도는 기존원리의 체계적 조작, 스케일의 변형, 표면 디테일의 재배열 등이고 건축의 어휘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더니즘에 의해 배척되어온 토착적, 상징적 특성과 일상생활 및 대중문화의 평범한 요소들을 적극 참조,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이해될 수 있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³⁾ Post-Modernism을 정의하고 있다.

Paolo Portoghesi는 현재의 다원적 디자인 경향중에서 급진적으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두가지 특징을 첫째, 모더니즘이 취해온 역사적 디자인의 형태 언어를 의심하고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역사적 가설의 신뢰성(信賴性)을 검증하려는 경향과 둘째, 고급문화(the culture)와 하급문화(the banal)간의 상관성을 고찰하여 이를 건축에 반영시키려는 경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이상과 같이 몇몇 비평가들의 관점을 고찰해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연속적(連續的) 발전으로 보고 여러 진영을 포함시키려는 광의적(廣義的) 해석과 그와는 반대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더니즘의 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려는 진영을 의미하는 협의적(狹義的) 해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모든 디자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협의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것은 C.Jencks가 최근에 Late-Modernism과 Post-Modernism으로 현재의 제 경향들을 대별해 놓은 관점을 따를 때 후자의 의미에 더 근접한다고 보겠다. 협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미의 다의성(多意性, Multivalence), 상징성(象徵性, Symbolism), 장식성(裝飾性, Ornamentation), 회화성(繪畫性, Picturesqueness), 인유(引喻, Allusion), 역사주의(歷史主義, Historicism), 이미지(心像, Imagery)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공통되는 것은 첫째, 모더니즘의 배타적인 디자인에 반대한다는 점과 둘째, 디자인을 언어로 보고 그 의미의 풍부성을 위해 포괄적 디자인 철학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서 말한 여러 개념들을 창조하면서 디자인을 지역적 맥락(Context)에 보다 적합시키고 디자인의 상징과 의미 회복을 통하여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POST-MODERNISM의 디자인적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제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속에서 싹터 왔으며 모더니즘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포기하고 보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왔다. 따라서 디자인의 역사 및 의미론적 토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전통이 다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모더니즘 시대의 근대 디자이너들에게는 금기시 되어 왔던 역사와 역사적 양식에 다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모티브에서 참조해 온 디자인적 요소들은 콜라주(Collage)로 조합되며 거기에 다양한 색채가 가미된다.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은 건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도록 디자인된 것이지 단순히 기능과 구조의 합리적 해결이나 은둔적인 추상적 오브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은 순수 형태보다 잡종(Hybrids)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더 좋아하며 디자인의 표현적 내용을 높이고자 복수적이며 동시대의 의미의 해석을 장려한다. 많은 포스트 모던 디자인을 특징짓는 공간의 층화(Layering)는 입면의 문화적 예술사적 참조와 함께 서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러한 복잡다양한 시도속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모더니즘에 의해 부정되었던 인간 감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시도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이 대중주의와 다원주의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피상적인 향수로부터 가장 전문화된 역사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도하려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은 본질적으로 의미(Meaning)와 상징성(Symbolism)의 심오한 추구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이것은 디자인이 인간 경험과 같은 유대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가치체계를 발견하여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주의(Historicism)

포스트모던 디자인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모티브를 디자인의 형태언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모더니즘 시대에서 무시되어온 형태와 그 형태가 지닌 의미의 회복을 위하여 역사적, 전통적 요소를 인용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의미전달의 모체로서 장식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ichael Graves는 7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의 Le Corbusier의 초기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기능적 자연 발생적인 은유(Metaphor)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작품에 전통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인식이 가능한 모울딩(Molding), 분절된 페디먼트(Pediment), 키스톤(Keystones), 등 역사적 단편들이 도입 되기 시작했으며 벽과 표면에서 장식화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시 여겼던 개념중 하나가 바로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역사적 모티브의 인유는 디자인이 지니는 의미의 전달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역사를 참조한 형태에 대한 디자이너의 태도는 과거 양식의 정확한 재생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 요소에서 여러가지 시각적요소를 추출하여 상황에 맞게 각색, 적용하는 절충적 태도이어야 한다.

(2) 은유와 상징(Metaphor and Symbolism)

인간은 사물을 대할 때 끊임없이 비슷한 대상과 비교하는 은유적 방법을 사용한다.⁵⁾

근대 디자인에서와 같이 친밀감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있는 사실과 그 사물 은유적으로 비교한다. 이와같이 어떤 경험을 다른 것에 결부시키는 작업은 특히 창조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상징성은 Venturi가 그의 이론과 작품을 통하여 실현해온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관심사이다. Venturi의 주장에 따르면 유사 이래 건축은 항상 상징적이었고 건축가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데 있기

2) Robert A.M. Stern(1980), Modern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Architectural Design, March-April
3) C.Ray Smity. Supermannerism(1977) New Architecture in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E.P. Dutton.
4) Paolo Portoghesi(1982). After Modern Architecture. pp.9-11

5) C.Jencks(1977) p.42

보다는 이미 알려져있는 상징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얻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건축물은 추상적 수단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이미지, 기억, 연상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갖게되는 도상학적 수단 (Iconological means)을 통하여 상징적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장식성 (Ornamentation)

Robert A.M. Stern은 장식의 적용은 죄악이 아니며⁶⁾ 건축사 속의 훌륭한 건물에서 영감을 얻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주변 건물과 관계를 맺는 건물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맥락적인 통합성 (Contextual Integration)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또 파사드 (Facade)는 투명한 베일 (Veil)이나 심오한 구조적 비밀의 단언 (Affirmation)이 아니라 실제 세워진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착각 및 지각을 중재하는 매개체 (Mediator)로서의 기능을 행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정 이미지를 조사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건물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4) 이중 코드화 (Dual-Coding)

이중 코드화란 디자인의 의미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이중의 코드화로서 엘리트 코드 (Elite-Codes)뿐 아니라 대중적 코드 (Popular-Codes)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그 결과로 작품의 형태가 이중적 의미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중의 이해와 접근을 위하여 디자인에 대중문화와 팝아트등 다른 예술의 개념을 흡수하여 표현수단으로 삼고 대중과의 의사전달을 통한 디자인의 대중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Venturi는 「인습적인 것을 비인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평범한 대상들을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배열하여 친숙한 요소들을 친숙하지 않은 맥락 (Context)에 놓음으로써 그것들이 옛 의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도 지각되는 방식」⁷⁾을 강조 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인습적인 요소들을 다시 채용하고 평범하고 진부한 대중문화적 요소들을 디자인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의 어휘를 보다 확장하여 대중적 취향과 하부문화의 다양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5) 복잡성과 대립성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복잡, 난해한 모든 문제들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전보다 더욱 신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원시적이고 단순한 삶의 과정으로부터 복잡하고 대립되는 삶의 과정으로 순서대로 옮겨가는 움직임은 모든 개인이 성숙해가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Robert Venturi는 근대 건축의 단순성 (Simplicity) 대신에 애매성 (Ambiguity)을, 의미의 명료성 (Clarity of Meaning)보다는 풍부성 (Richness of Meaning)을, Either-or 보다는 Both-and 와 같은 태도를, 배제에 의한 통일성 (Easy Unity of Exclusion)보다는 포괄에 의한 난해한 통일성 (Difficult Unity of Exclusion)의 개념을 애매성의 시대 (The age of Ambiguity)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⁸⁾

(6) 맥락주의

건축에 있어서 맥락주의란 개개의 건물을 고립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단면으로 계획함으로써 문화적, 역사적 연속성과 도시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형개념의 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적 맥락 (Urban Context): 건축물이 위치한 도시의 맥락 및 주변과 조화시키기 위해 건물을 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

적인 면에서 동시에 디자인하려는 것을 말한다.

둘째, 토착성 (The Vernacular): 디자인 모티프를 지역적인 것에서 인용함으로써 주변환경이나 역사적 전통과 맥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장소성 (Place):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시켜 장소적 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며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유추적 장소, 지각 체험의 장소성등 모든 의미를 내포하는 광의적 의미로 해석된다.

(7) 절충주의 (Eclecticism)

절충주의는 시간적 절충주의와 공간적 절충주의, 두종류로 구분되는데 시간적 절충주의란 서로 다른 시간 즉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양식을 혼용함으로써 조형적 형태를 새로운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공간적 절충주의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결부시켜 한 디자인에 각기 다른 역사적 혹은 지역적 양식을 적용하는 구성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표현과정에서는 과거의 혹은 다른 지역문화의 직접적인 재생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요소에서 여러가지 형태적 모티프를 참조하여 상황에 맞게 각색, 적용해야 한다.

역사주의적 경향은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종적 절충주의라 말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공간과 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이한 문화에서 선택 되어진 형태, 재료에 의해 전혀 이질적인 공간을 표현한 것은 횡적 절충주의라 말할 수 있다.

3. POST-MODERN DESIGN의 문제점 인식

3-1. 포스트모던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외래문화를 어떤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 문화를 수용하여야 할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 디자인 (Modern Design)의 수용은 자체 역량의 허약성으로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화의 능력 없이 수행되었고 그것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의 문화는 서구 디자인의 피상적 수용이라는 취약성에다가 근대가 갖는 부정적 측면을 고스란히 물려 받고 있다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전통 문화와의 충돌과 갈등이라는 난제까지 겹쳐서 한국의 현대디자인의 좌표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포스트 모던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포스트 모던 디자인의 가능성.*

긍정적인 가능성	부정적인 문제점
- 한국성, 지역성등의 추구를 위한 계기	- 모더니즘에 미숙한 이해와 경험으로 개념의 이해가 혼돈될 가능성
-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개념적 어휘의 이해와 전통계승의 방법적 가능성 모색	- 전통계승의 명분이라 단편적인 콜리주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
- 역사적 관심으로의 회귀라는 필요성	- 지역적 특징이 외면된 피상적, 맹목적, 표피적 수용의 한계
- 풍요로운 디자인 표현의 동기	- 시대합의로서의 문화적 저자가 빈약
-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인한 인간 감성과의 커뮤니케이션	- 한국성과 관련없는 서구적 모티프의 인용에 의한 맥락성의 상실
-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에 힘입어 인간 환경의 고양	

포스트 모더니즘을 디자인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거 양식의 지나치고 단편적인 도입은 오히려 특이한 기형적

6) Stern에 따르면 장식된 벽은 인간척도 (Human Scale)와의 관계 속에서 건물의 요소들을 분절하려는 인간의 선취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건축의미의 매체로서 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7) Venturi(1977). Learning from Las Vegas. p.44.

8) C.Ray Smith(1977) p.38

9) PLUS, No. 8806 pp.124-125

형태를 낳게 되었고 상징성 자체도 흥미해지며 형태적 유희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적 재료나 구조, 기술을 무시한 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창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과거의 형태만을 참조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적 인유(Historical Allusion), 맥락주의(Contextualism), 장식성(Ornamentation), 은유, 복잡성과 대립성 등은 근대 미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려는 디자인 개념이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디자인의 원리나 수단으로 적용되려면 다양함, 애매함등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원리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상징적 의미와 형태적 은유가 담긴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와 상징은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생성된 기억 이미지들의 전환을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적용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물들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전시장의 구조물이나 파빌리온, 상업 공간 또는 사인 보드(Sign Board)나 공간 구획을 위한 구조물, 상징적 입구(Entrance)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 가치 뿐 아니라 효용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4. 실험적 적용방법의 모델 제안

4-1. 기억 이미지 수집단계 (Memory Image Collage)

이 기억이미지 단계는 공동체 속의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위한 준비단계라 할수 있다.

문화적 학습이나 직,간접 경험에 의해 이미 알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 즉, 전통의상이나 부채, 주머니등의 장신구, 기와, 박공, 서까래, 문창살에서 인용한 우리의 역사적 모티브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알수있는 신체 일부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4-2. 시각적 형태요소의 추출단계 (Visual Elements)

기억이미지 단계에서 수집한 메시지들로부터 시각적 형태 요소를 추출한다. 추출과정에서는 각 모티브에서 비롯된 선이나 형태를 과장, 해체, 왜곡, 확대, 축소하여 표현한다. 단지 우리의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는 고유의 형태에서 해독이 가능한 정도로 문화적, 시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범위에 한해서 변형시킨다.

이 과정은 다음의 파생어(Variations) 제시를 위한 선행단계이다.

4-3. 파생어 단계 (Variations)

파생어 즉 다양한 대안제시 단계에서는 앞에서 추출한 각각의 형태요소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몇가지 독립적인 대안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한다. 기억이미지 수집단계에서 시각적 형태요소의 추출 단계로 전환할때와 마찬가지로 파생어 단계에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의 해독이 가능한 정도로 전환시킨다. 이 단계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다음단계 - 검증단계 -에서 입체로 나타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각각의 그림들은 공간 구조물의 평면 내지는 입면의 역할을 한다.

4-4. 공간 디자인 및 검증단계

파생어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표현된 형태를 공간의 평면 또는 입면으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공간의 구조물을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도 전단계에서와 같이 해독할 수 있는 정도로 이미지 전환이

가능하며 정확한 크기와 용도, 기능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간으로서의 느낌을 찾을수 있도록한다.

이 과정은 많은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역사적 대중적 모티브들을 단편적으로 도용한 것과는 다르게 기억 이미지들의 적절한 변형을 통하여 자칫 구태의연하기 쉬운 소재들을 현실적 분위기에 맞도록 전환시킨 실태를 직접 검증하는 단계이다.

4-5. 이미지 전환에 의한 공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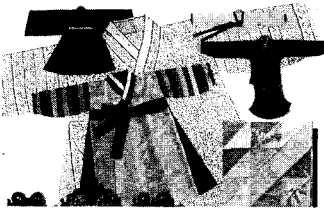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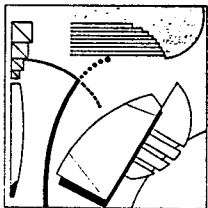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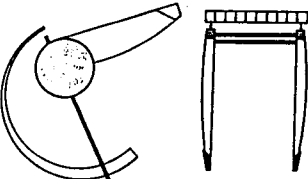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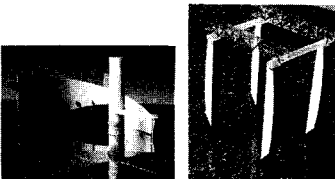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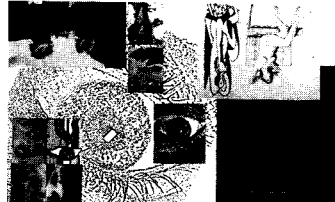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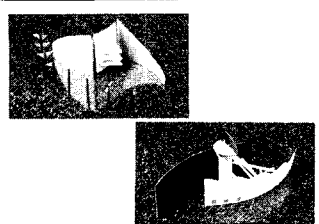
Image 전환 1	
<p>1-1. Memory Image (기억이미지) 우리의 문화영역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통의상이라는 역사적 모티브.</p>	
<p>1-2. Visual Elements (시각적 형태요소추출) 역사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시각적 형태요소를 도식적으로 전환시킨 그림으로 변형된 한복의 배례선과 응용된 보자기의 분할선 등이 보임.</p>	
<p>1-3. Variations(대안제시) 선들의 해체와 조립의 과정을 반복한 형태요소의 전환으로서 공간구조물의 평면 또는 입면으로 이용.</p>	
<p>1-4. Conceptual Model 순수기하학적 형태와 고전적 모티브를 혼용하여 기둥, 벽체, 쉘터, 게이트 등 공간구조물로 입체화함.</p>	
Image 전환 2	
<p>2-1. Memory Image (기억이미지) 특정한 문화권에서의 경험이나 학습없이도 기억구조에 저장 가능한 신체 일부의 이미지를 콜라주함.</p>	
<p>2-2. Visual Elements (시각적 형태요소추출) 눈(eye)의 은유와 상징을 위하여 형태언어를 도출. 이 과정에서도 형태의 왜곡과 과장, 반복 등의 구성 방법이 사용됨.</p>	

Image 전환 2	
2-3. Variations (대인제시) 대상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완만한 곡선과 기하학적인 원, 그리고 그 원의 분할된 형태가 적절히 이용되는 등 사실과 역설적 변용이 적당히 이루어졌음.	
2-4. Conceptual Model 반복된 기둥은 시각적으로 차단된 벽면과는 다른 느낌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음. 어두운 뒷벽과 대조되는 입면의 자유곡선이 강조되고 두벽면을 가로지르는 직선적인 구조물들은 공간에서 입구성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함.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조형 개념, 그리고 구성원리등을 분석하였고 그것들을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포스트모던 디자인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얻어진 포스트 모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분야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에서 무시되어온 형태와 그 형태가 지니는 의미, 문화적 상징성등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과거의 역사와 전통적 형태를 인용함으로써 기억과 이미지, 연상을 형태전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입문적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즉, 디자인에 Pop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디자이너와 대중, 또는 엘리트들과 대중이 모두 디자인을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공통영역을 만들어 이중 코드화(Dual Coding)하였다.

세째, 공간의 형태구성 방법에 나타나는 수법으로는 층화(Layering), 슈퍼그래픽(Supergraphic), 중첩(Superimposition), 슈퍼스케일(Superscale)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또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공간간각의 체험을 다양하게 해줌으로써 경험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것이다.

네째, 고전적 모티브의 인용방식에 있어서 많은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이 단편적인 Collage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어떤 이론적 원리나 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상황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이 인용하는 역사적 단편들이 어떤 통합된 규칙에 의해 조합될 때 그들의 시도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포스트 모던 디자인의 조형개념을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사례로 적용하기 위하여 기억이미지의 전환 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과정의 결과를 입체적인 공간 구조물로 나타내었다. 전통이란 것이 없이 창작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은 과거의 것에서부터 전통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창조가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방법론인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결과물들은 이미지의 시각적 형태 표현에 비중을 두고 주로 형태에서 의미와 상징, 은유등을 강조하였으나 그 이외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풍토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의 문제를 상징성과 연결시켜 정리할 수도 있고 우리 건축에 내재하는 내부질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요소들을 공간 디자

인에 적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피차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과와 수정의 정상적인 수용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쪽은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탈 근대를 철저히 체득하고 자기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진정한 디자이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무런 이론적 기반없이 피상적으로 형태나 모방하고 개인적 표현의 도구 정도로 이용하였다라는 과거 역사의 부정적인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이 버렸던 역사성과 대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 민주시대의 디자인에 논거를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지 형태 결정만을 위한 방법론으로써가 아닌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한 새로운 디자인에로의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문화적 토양과 동일한 생활 언어 속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엄격하고 정밀한 상호 교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새로운 탄생,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한 총체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기(1990) <한국인의 조형의식>, 미간행
2. 안상수(1986) <한국 전통 문양집, 기와무늬 편>, 서울:도서출판 안 그래픽스
3. 임승빈(1988) <환경 심리 행태론>, 서울:보성출판사
4. 정성호, 강내희 편(1989) <포스트 모더니즘론>, 서울:도서출판 터
5. 차배근(1986)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서울:세영사
6. Albrecht Wellmer(1990)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변증법>, 서울:도서출판 녹진
7. J.Douglas Porteous(1986) <환경과 행태>, 송보영, 최형식(역), 서울:명보문화사
8. Bloomer, Kent C. and Charles W. Moore (1977)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9. Charles Jencks(1973)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New York:Anchor Press.
10. (1977)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Rizzoli
11. (1980) <Late-Modern Architecture>, London:Academy Editions
10. Paolo Portoghesi(1982) <After Modern Architecture>, New York:Rizzoli
11. Robert Venturi(1977)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The Museum of Modern Art
12.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and Steven Izenour(1977) <Learning from Las Vegas>, Cambridge,Mass.: The MIT Press
13. Smith C.Ray(1977) <Supermannerism :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E.P.Dutton
14. Carleton KnightIII(1984) <Post-Modern What>, Architecture, June
15. Charles Jencks(1980) <Post-Modern Classicism:The New Synthesis>,AD, May-June
16. Robert Stern(1980) <Modern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AD, March-April
17. 강병국(1984) <Post-Modern Classicism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8. 김성호(1985) <포스트 모던 건축의 공통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 이정미(1986) <포스트 모던 경향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 조희철(1982) <서양건축의 전통적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접수 : 1994. 11. 28)